

李白 <爲宋中丞請都金陵表> 역해

趙得昌* · 趙成千**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신 송약사 아뢰옵니다.
 - 2.2 삼가 바라옵건대
 - 2.3 신은 人事의 득실을 헤아려
 - 2.4 지금 황하 이복은
 - 2.5 신은 또한 탕부터 반경까지
 - 2.6 더 나아가 그곳에서는
 - 2.7 解說
3. 결론

1. 서론

李白的 散文은 모두 67편(賦 포함)과 <雜題四則>이다.¹⁾ 이것이 그의 산문 총수라고 할 수는 없다. 전란으로 인하여 산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이백의 산문을 문체로써 보면, 書表序記, 頌讚銘碑, 祭文辭賦이다.

이백의 산문은 그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고, 시를 이해하는데 보조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사상 및 예술세계를 조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 協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主著者)

** 乙支大學校 教養學部 助教授(交信著者 sczhao@hanmail.net)

1) 中華書局的 王琦注 《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이 따로 수록되어 있는데, <比干碑>는 《全唐文》에서는 李翰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백에 대한 연구는 시 작품에 대한 연구 및 번역에 치중되어, 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역주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현재 국내에서 이백 산문에 대한 역주연구는 《古文觀止》와 《古文珍寶》에 수록된 <春夜宴桃李園序>²⁾ <與韓荊州書> 두 편의 번역, <上安州裴長史書> (申夏閏,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6집, 2010년), 《이태백 명시문 선집: 시선(詩仙)의 향연》(황선재, 박이정, 2013년)에 번역 수록된 <爲宋中丞自薦表>, <地藏菩薩讚>, <爲宋中丞祭九江文>³⁾ 및 <이백(大鵬賦)역주와 해제> (徐盛, 趙成千, 《中國學論叢》 제46집, 2014년) 정도이다. 국내 이백 학술 연구 열기, 기간, 업적 등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필자는 이백 산문 전편을 역주하여, 국내외 이백 연구에 중요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爲吳王謝責赴行在遲滯表>, <爲宋中丞自薦表>에 대해 역주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본고는 <爲宋中丞請都金陵表>를 대상으로 역주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어 결실을 맺는다면, 국내외 이백 산문에 대한 첫 역주 성과가 되고, 이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원문, 校記, 번역, 註釋, 解說의 형식을 취한다. 원문은 '宋蜀本'을 위주로 하고, 校記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수록하면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힌 것이 있을 때는 추가한다.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하면서 의미의 원활, 순통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의역을 한다. 註釋은 자구 풀이는 물론 관련 用例, 典故 등을 들어 그 원문을 제시하고 번역하여 학술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 연구를 수용하면서 연구자의 새로운 성과를 추가한다. 解說에서는 작품의 해제, 창작연대, 역대평론, 작품의 특성 및 예술성취 등을 고찰한다.

본 연구는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을 기본으로 하고, 王琦 注 《李太白全集》,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등을 참고로 한다.

2) <春夜宴從弟桃花園序>라고도 한다.

3) 이 책에는 <上安州裴長史書>, <春夜宴從弟桃花園序>도 번역 수록되어 있다.

2. 본론

宋中丞을 대신해 金陵으로 천도를 주청하는 표
(爲宋中丞請都金陵表)

2.1 신 송약사 아뢰옵니다.

臣某言⁴⁾: 臣誠惶誠恐,⁵⁾ 頓首頓首. 臣聞社稷無常奉,⁶⁾ 明者守之⁷⁾; 君臣無定位,⁸⁾ 暗者失之.⁹⁾ 所以父作子述,¹⁰⁾ 重光疊輝.¹¹⁾ 天未絕晉,¹²⁾ 人惟戴唐.¹³⁾ 以

4) 臣某言: 奏나 表의 첫머리 격식. 臣은 신하가 군주에 대해서 낮추어 부르는 칭호이며, 某는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宋若思를 가리킨다.

5) 誠惶誠恐: 공경의 말로 황궁하옵건데의 뜻으로 표를 올릴 때 상용하는 어투이다.

6) 臣聞社稷無常奉: ○社稷: 국가, 왕조 ○常奉: 오래도록 받들다. <左傳·昭公 32年>에서 “사직이 오래도록 받들어짐이 없었고, 군신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지위가 없었던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社稷無常奉, 君臣無常位, 自古已然.)” 라고 하였다.

7) 明者守之: 영명한 군주라야 그것을 지킨다. 之는 대명사로 국가사직을 말한다.

8) 君臣無定位: 군주의 왕위와 신하의 관직은 모두 고정불변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주석 6) 참고.

9) 暗者失之: 어둡고 무능한 사람은 지위를 상실한다. 之는 지위를 말한다.

10) 父作子述: 作은 창업, 述은 계승하다. 아버지가 창업하고 아들이 계승하다. <禮記·中庸>에서 “공자가 말하였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문왕이겠지! 王季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武王이 그의 아들이 된다. 앞에서는 아버지가 개국하고 뒤에서는 아들이 계승하였다. 무왕은 大王·王季·文王의 뜻을 계승하여 한번 무력을 사용하여 천하를 얻었다.’(子曰: “無憂者, 其惟文王乎! 以王季爲父, 以武王爲子, 父作之, 子述之. 武王繼大王·王季·文王之緒, 一戎衣而有天下.”)”라고 하였다. 문장에서 ‘父’는 玄宗, 子는 肅宗을 의미한다.

11) 重光疊輝: ‘重光’의 사전적 해석은 후왕이 전왕의 공덕을 계승하다. 대대로의 盛德, 광휘가 서로 이어지다. <尙書·顧命>에서 “옛 임금이신 문왕과 무왕은 전대의 공업과 덕행을 펴 시어, 범물을 제정하고 교령을 펴시니 수고로우셨네(昔君文王, 武王宣重光, 奠陳陳教, 則肆.)”라고 하였다. <古文尙書>에서는 “옛날 군주 문왕과 무왕이 전대의 공업과 덕행 및 대대로의 성덕을 펼쳤음을 말한 것이다.(言昔先君文武布其重光累聖之德.)”라고 하였다. 문장에서는 肅宗이 玄宗과 함께 공덕이 높고 크며, 광휘가 중첩되어 빛나는 형상이 있음을 말한다.

12) 天未絕晉: 하늘은晉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원래 <左傳·僖公 24年>에서

功德有厚薄, 運數有修短.¹⁴⁾ 功高而福祚長永, 德薄而政教陵遲.¹⁵⁾ 三后之姓, 於今爲庶,¹⁶⁾ 非一朝也.

<校記>

제목(請都)의 請이 劉本¹⁷⁾에는 論으로 되어 있다. 論으로 될 경우 表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請이 더 적절하다.

신 송약사 아뢰옵니다. 신은 진실로 황공하여 고개 숙이고 또 고개 숙여 아뢰옵니다. 신이 듣건대, 사직은 오래도록 받들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으니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 군신은 오래도록 지위를 유지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잃게 되나이다. 그런데 父皇께서 기틀을 닦으셨고 폐하께서 계승하시어 두 광휘가 대대로 빛나고 있으니, 하늘은 아직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사람들은 당나라를 떠받들고 있나이다.

공덕의 후함과 박함으로 국운은 길거나 짧게 됩니다. 공이 높으면 복은 영원하지만, 덕이 박하면 政教가 쇠락하나이다. 虞·夏·商의 후손들이 지금

은 것이다. 여기에서 “개자추가 말하기를, 헌공의 아들이 아홉 명인데 오직 주군만 남아 있습니다. 혜공과 회공은 친한 이가 없어 나라 안과 밖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쯔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주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군이 아니고서 누구겠습니까?(推曰: 獻公之子九人, 唯君在矣. 惠懷無親, 外內棄之. 天未絕晉, 必將有主, 主晉祀者, 非君而誰.)”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晉文公 重耳가 쯔나라를 진흥시킨 것으로 “天未絕唐”을 비유하였다. 즉 영명한 肅宗이 있어서 당을 멸망시킬 리 없다는 것을 말한다.

13) 戴唐: 당나라를 지지하다. 戴는 지지, 찬성의 뜻이다.

14) 運數: 자연의 규율, 천운, 국운, 명운을 가리킨다. ○修: 길다. 《漢書·谷永傳》에서 “谷永이 주대하여 말하길…… 공덕에는 후함과 박함이 있고, 수명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시대에는 흥망이 있고, 천도에는 성쇠가 있다(永對曰: ……功德有厚薄, 期實有修短, 時世有中季, 天道有盛衰.)”라고 하였다.

15) 政教陵遲: 政教가 언덕이 무너지듯 쇠락하다. 《詩·王風·大車序》에 “예의가 쇠퇴하고 남녀가 음탕하여(禮義陵遲, 男女淫奔.)”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陵遲는 陔陔(역주: 경사가 완만한 모양)과 같으니, 예의가 무너진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다(陵遲, 猶陔陔, 言禮義廢壞之意也.)”라고 하였다.

16) 三后之姓, 於今爲庶: 三后는 虞·夏·商 3대를 말하며, 庶는 평민, 백성의 뜻이다. 《左傳·昭公 32年》에서 “우·하·상의 후손이 지금은 서민이 된 것은 그대께서도 아시는 것입니다(三后之姓, 於今爲庶, 主所知也.)”라고 하였다.

17)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 42卷.

서민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나이다.

2.2 삼가 바라옵건대

伏惟陛下欽六聖之光訓,¹⁸⁾ 擁千載之鴻休,¹⁹⁾ 有國之本,²⁰⁾ 羣生屬望.²¹⁾ 粵自
明兩,²²⁾ 光岐之陽,²³⁾ 昔有周太王之興, 發跡於此,²⁴⁾ 天啓有類,²⁵⁾ 豈人事

- 18) 伏惟: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진술할 때 공경을 나타내는 말. ○欽: 공경하다. ○六聖: 高祖·太宗·高宗·中宗·睿宗·玄宗을 말한다. ○光訓: 大訓, 빛나는 교훈. 《尚書·顧命》의 “친하를 화합시키어, 문왕과 무왕의 빛나는 교훈에 보답하고 선양하라(變和天下, 用答揚文武之光訓.)”에 그 용례가 있다.
- 19) 擁: 보유하다. 소유하다. ○千載: 천년. 영구히. ○鴻休: 鴻業, 大統, 大業.
- 20) 國之本: 國本의 뜻으로 李亨을 말한다. 詹鏐·牛寶形 등은 ‘國之本’을 國本으로 해석하고 太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趙崇의 《李白詩文系年》 등에 의거하면, 본 문장은 至德2년(757)에 지은 것으로, 李亨이 제위에 오른 것은 至德元年(756)임으로 國本을 태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國本에는 황위를 계승한 사람의 뜻이 있다. 본 문장에서 이미 ‘陛下’라는 명칭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바, 國本을 폐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1) 羣生屬望: 못 사람들이 태자에게 희망을 가지다.
- 22) 粵: 발어사. ○明兩: 두 종류의 광휘. 앞 단락의 重光·疊輝와 더불어 같은 뜻. 《易經·離卦》의 “밝음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이 離卦이다. 대인은 밝음을 이어받아 사방을 비추는 것이니라(明兩作離, 大人以繼明照於四方.)”에 그 용례가 있다. 孔穎達이 疏에서 “밝음이 두 번 일어난다는 것은 離가 日이 되고 日이 明이 되는 것이다. 지금 위아래로 두 가지 같은 모양(二)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두 번 일어나는 것이 離卦이다’라고 말한 것이다(明兩作離者, 離爲日, 日爲明, 今有上下二體, 故云明兩作離也.)”라고 하였다.
- 23) 光岐之陽: 빛이 岐山의 남쪽에서 빛난다. 唐代에 岐山州는 岐山·鳳翔 등 9縣으로 나뉘었다.
- 24) 昔有周太王之興, 發跡於此: 周나라 太왕이 岐山의 남쪽에서 帝業이 창성한 것을 말한다. 周太王은 古公亶父이며 본명은 姬亶이다. 《史記·周本紀》에는 古公亶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고공단보가 후직과 공류의 사업을 다시 익히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戎狄의 하나인 薰鬻이 그를 공격해 와서 재물을 얻으려 하자, 그들에게 재물을 내주었다. 얼마 안 있어 그들이 다시 공격하여 땅과 백성을 얻으려 하자 백성들은 모두 분개하여 싸우고자 했다. 고공단보가 말하길, ‘백성이 군주를 세우는 것은 자신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오. 지금 용적이 공격하는 까닭은 우리의 땅과 백성 때문이오. 백성이 나에게 있던 저들에게 있던 무슨 차이가 있겠소?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이는 그들의 아버지나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의 군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소. 그리고는 私兵을 거느리고 빈을 떠나서 漆水·沮水를 건너고 梁山을 넘어서 岐山 아래 정착했다. 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거국적으로 노인들을 부축하고 어린이들을 이끌며 모두 기산 아래에서 고공단보에게 다시 귀순했다. 그 이웃 나라의 사람들도 고공단보가 인자하다는 소문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순했다. 이에 고공단보는 용적의 풍속을 개량하고 성과와 가옥을 건축하고 읍을 나누어 그

歟?²⁶⁾ 皇朝百五十年,²⁷⁾ 金革不作,²⁸⁾ 逆胡竊號,²⁹⁾ 剝亂中原,³⁰⁾ 雖平嵩丘,³¹⁾ 填伊洛,³²⁾ 不足以掩宮城之骸骨³³⁾; 決洪河,³⁴⁾ 灑秦雍,³⁵⁾ 不足以蕩犬羊之膻臊.³⁶⁾ 毒浸區宇,³⁷⁾ 憤盈穹旻.³⁸⁾ 此乃猛士奮劍之秋,³⁹⁾ 謀臣運籌之日.⁴⁰⁾ 夫不

들을 살게 했으며, 五官有司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노래하며 그 덕을 칭송했다. (古公亶父復修后稷·公劉之業, 積德行義, 國人皆戴之, 薰鬻戎狄攻之, 欲得財物, 予之. 已復攻, 欲得地與民. 民皆怒, 欲戰. 古公曰: '有民立君, 將以利之. 今戎狄所爲攻戰, 以吾地與民. 民之在我, 與其在彼, 何異. 民欲以我故戰, 殺人父子而君之, 予不忍爲.' 乃與私屬遂去邠, 度漆沮, 逾梁山止於岐下. 邠人舉國扶老攜弱, 盡復歸古公於岐下. 及他旁國聞古公仁, 亦多歸之. 於是古公乃貶戎狄之俗, 而營築城郭室屋, 而邑別居之. 作五官有司. 民皆歌樂之, 頌其德.)" 이 두 구는 周太王의 사적을 빌어 숙종의 제업이 흥성한 것을 말하였다. 天寶원년에 岐山州가 扶風郡으로 개칭되었는데, 肅宗(李亨)이 즉위하여 鳳翔郡으로 또 개칭하였다. 肅宗은 다음 해에 鳳翔에 머물렀고 10월에는 兩京 즉 長安과 洛陽을 회복하고 長安으로 돌아왔다. 문장에서는 기산의 남쪽에서 肅宗의 제업이 또 흥성한 것을 말한다.

- 25) 天啓: 天帝의 계시. ○有類: 유사함이 있다. 즉 하늘이 才德을 서로 같게 베풀어 주었다는 뜻으로, 肅宗과 周太王이 모두 영명한 군주에 속한다는 뜻이다.
- 26) 人事: 人力, 人爲.
- 27) 皇朝百五十年: 唐 고조에서 肅宗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8) 金革不作: 전란이 일어나지 않다. 즉 태평을 뜻한다. 金은 兵器, 革은 皮혁으로 만든 투구, 갑옷 등을 말하는데, 金革은 引伸되어 전란을 말한다. 《禮記·中庸》의 “병기와 갑옷을 갈고서 죽어도 싫어하지 않음은 부방의 강함이니, 강한 자가 이에 거처하느니라(枉金革, 死而不厭, 北方之強也, 而強者居之.)”에 그 용례가 있다.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金革은 군사와 병기를 말한다(金革, 謂軍戎器械也.)”라고 하였다.
- 29) 逆胡: 반란한 호인 즉 安祿山·史思明을 말한다. 두 사람은 모두 胡人이다. ○竊號: 국호를 도둑질하다. 安史의 난에서 大燕을 건립하고 황제가 되어 연호를 建武로 정한 것을 말한다.
- 30) 剝亂: 탈취하고 혼란시키다. ○中原: 洛陽에서 開封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황하 중하류 지역을 말한다. 크게는 河南省全部·山西省東南部·河北省南部·山東省西南部·安徽省北部·江蘇省西北部 등의 지역을 포괄하고, 작게는 지금의 河南省을 말한다. 中原을 中國이라 범칭하기도 한다.
- 31) 嵩丘: 河南의 崇山을 말한다.
- 32) 伊洛: 河南의 伊河·洛河 두 水系를 말한다.
- 33) 不足以掩宮城之骸骨: 安史의 난으로 백성들의 죽음이 많은 것을 말한다. 일설에 의하면,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 인구는 890만 호에서 290만 호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써 재정 적자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당 왕조는 군비 조달을 위해 백성을 수탈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생 파탄은 균전제와 조용조제를 붕괴시켰으며, 부병제가 완전히 무너져 군사제도는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점은 당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 34) 決: 터뜨리다. ○洪河: 黃河. 潘嶽<河陽縣作>의 “날이 저물어 어두운 구름 일어나는데, 성에 올라 洪河를 바라보네(日夕陰雲起, 登城望洪河.)”에 그 용례가 있는데, 李周翰은 “洪河는 黃河이다(洪河, 黃河也.)”라고 주를 달았다.
- 35) 秦雍: 西京 즉 長安을 말한다. 지금의 陝西 西安 일대를 말한다. <西京賦>에 “唐의 西京은 옛 진나라 땅인데, 《禹貢》에는 雍州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秦雍이라 하였다(唐之西京, 古秦地, 在《禹貢》爲雍州之域, 故曰秦雍.)”라고 되어 있다.

拯橫流,⁴¹⁾ 何以彰聖德?⁴²⁾ 不斬巨猾,⁴³⁾ 無以興神功。十亂佐周而克昌,⁴⁴⁾ 四凶及虞而乃去。⁴⁵⁾ 去元凶者,⁴⁶⁾ 非陛下而誰? 且道有興廢, 代有中季。⁴⁷⁾ 漢當三

- 36) 蕩: 쓸어버리다. ○犬羊: 安史 반란군의 將兵을 비유한다. ○臆臊: 누린내. 안사의 난으로 조성된 더러운 기운을 말한다.
- 37) 區宇: 강토경역의 의미. 宇는 上下四方을 가리킨다. 《文選》卷三·張衡<東京賦>의 “강토는 안녕을 이루어, 화평을 생각하고 치우치지 않음 구하네(區宇乂寧, 思和求中.)”에 그 용례가 있다.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에서는 區宇를 하늘의 의미로 보았다.
- 38) 穹旻: 《爾雅·釋天》에서 “穹은 그 색이 푸르며, 하늘을 말한다. 봄은 蒼天, 여름은 昊天, 가을은 旻天, 겨울은 上天이다(穹, 蒼蒼, 天也. 春爲蒼天, 夏爲昊天, 秋爲旻天, 冬爲上天.)”라고 하였다. 郭璞은 주에서 “하늘의 형체는 위로 불룩하고, 그 색은 蒼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 하였다(天形穹隆, 其色蒼蒼, 因名云.)”라고 하였고, 邢昺은 疏에서 “李巡이 주에서……봄은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그 색이 푸르디푸르기 때문에 蒼天이라 한다. 여름은 만물이 장성하니, 그 기운은 성대하기 때문에 昊天이라 한다. 가을은 만물이 성숙하여 모두 무늬가 있기 때문에 旻天이라 한다. 겨울은 음기가 위에 있어 만물이 얼드려 감추기 때문에 上天이라 한다(李巡注……春, 萬物始生, 其色蒼蒼, 故曰蒼天. 夏, 萬物盛壯, 其氣昊大, 故曰昊天. 秋, 萬物成熟, 皆有文章, 故曰旻天. 冬, 陰氣在上, 萬物伏藏, 故曰上天.)”라고 하였다.
- 39) 奮劍之秋: 힘으로 검을 휘둘러 적을 무찌르던 때.
- 40) 謀臣: 슬기와 피가 있는 신하 또는 모략에 뛰어난 신하. ○運籌: 전략 혹 책략을 주판을 놓듯이 이리저리 궁리하고 계획하다.
- 41) 橫流: 물이 흘러넘치다. 《孟子·滕文公 上》의 “요임금 때에 천하는 화평하지 않아 홍수가 마구 흘러넘쳐 천하에 범람하였다(當堯之時, 天下猶未平, 洪水橫流, 汎濫于天下.)”에 그 용례가 있다.
- 42) 夫: 발어사. ○拯: 건지다. 구조하다. ○橫流: 逆流. 안사의 반란을 말한다.
- 43) 巨猾: 큰 奸賊. 안록산 등을 말한다.
- 44) 十亂佐周而克昌: 十亂은 원래 周武王을 보좌했던 열 명의 賢臣을 말한다. 《尚書·泰誓》에 “나[역주: 周武王]는 현신 열 사람이 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이었다(予有亂臣十人, 同心同德)”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亂은 治의 의미이다. 나의 다스리는 신하는 열 명이라고 일컫는 것이다(亂, 治也. 謂我治理之臣十人也.)”라고 하였다. 十人은 周公旦·召公奭·太公望·畢公·榮公·太顛·閔天·散宜生·南宮適·文母(일설에는 文王之妃 大姒를 말하기도 하고, 일설에는 武王之 처 邑薑을 말함)를 말한다. 十亂은 대체로 황제를 보좌하는 열 명의 재능 있는 신하를 가리킨다. ○克昌: 자손이 창대하게 번성하다. 《詩·周頌·雝》의 “편안하여 하늘에 미처서 능히 그 후손을 번창케 하셨다(燕及皇天, 克昌厥後.)”에 그 용례가 있다. 鄭玄은 “문왕이 덕을 갖추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니 하늘에 미치어…… 또 그 자손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었다(文王之德安及皇天……又能昌大其子孫.)”라고 하였다. 이로써 자손이 크게 번창하는 것을 克昌이라 한다.
- 45) 四凶及虞: 饕餮·窮奇·檮杌·混沌을 말한다. 《左傳·文公 18년》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옛날에 帝鴻氏에게 재목이 되지 못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타인의 의로운 점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며 흉악하고 사특한 짓을 하기 좋아하니, 천하 사람들이 그를 渾沌이라 하였다. 少皞氏에게 재목이 되지 못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성실한 사람을 폄하하고 충직한 사람을 미워하고 사악한 말을 과장해서 꾸며내니, 천하 사람들이 그를 窮奇라고 하였다. 顓瑀氏에게 재목이 되지 못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교훈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 좋은 말인지 모르니, 천하 사람들이 檮杌이라 하였다. 이 세 가문이 대

七, 48) 莽亦爲災⁴⁹⁾; 赤伏再起,⁵⁰⁾ 丕業終光.⁵¹⁾ 非陛下至神至聖, 安能勃然中興乎?⁵²⁾

대로 그것을 근심으로 여겼다. 堯의 시대에 이르렀는데 요는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 緡雲氏에게 재목이 되지 못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좋아하여 천하 사람들이 饕餮이라 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를 渾沌·窮奇·檮杌 세 명의 흉악한 사람에 견주었다. 舜이 네 가문에서 빈객의 예로 대우를 받자, 이 네 명의 흉악한 무리를 몰아서, 사방의 끝으로 쫓아내어 악귀들을 막게 하였다. 이에 네 가문이 열리고 모두들 흉악한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昔帝鴻氏有不才子, 掩義隱賊, 好行凶慝, 天下謂之渾沌. 少皞氏有不才子, 毀信惡忠, 崇飾惡言, 天下謂之窮奇. 顓頊氏有不才子, 不可教訓, 不知話言, 天下謂之檮杌. 此三族世憂之. 至於堯, 堯未能去. 緡雲氏有不才子, 貪於飲食, 冒於貨賄, 天下謂之饕餮. 天下惡之, 比之三凶. 舜賓於四門, 乃流四凶族, 投諸於四裔, 以禦魘魅. 於是四門辟, 言毋凶人也.) ○及虞: 虞朝에 미치다. 虞朝(BC 36-BC 21)는 중국 역사상 夏나라 이전에 존재했던 나라. 舜이 虞朝의 마지막 통치자로 알려져 있다.

46) 元凶: 안록산·사사명을 가리킨다.

47) 代有中季: 朝代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代는 朝代, 中은 中興, 季는 末運, 末世의 뜻. 《漢書·谷永傳》에 “공덕에는 후함과 박함이 있고, 수명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시대에는 흥망이 있고, 천도에는 성쇠가 있다(功德有厚薄, 期質有修短, 時世有中季, 天道有盛衰)”라고 하였다.

48) 漢當三七: 漢은 漢나라, 三七은 210년을 말한다. 《漢書·谷永傳》에 “210년에 이르렀다(涉三七之節紀.)”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孟康은 “平帝에 이르러 三七 즉 210년의 액운을 만났으니, 지금 이미 그 해로 향하고 있다(至平帝, 乃三七二百一十歲之厄, 今已涉向其節紀.)”라고 하였다. 《宋書·符瑞志》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漢의 元·成世에 한 道士가 ‘예언하는 사람이 <한나라의 액운 三七>이라 하였다. 三七은 이백 십년으로 외척의 찬탈이 있다. 북이 三六에서 다하니, 용처럼 나는 劉秀가 조종을 부흥시키리라’ 하였다. 왕망이 漢을 찬탈함에 이르러 漢은 210년이 되었다. 왕망이 찬탈한 지 18년에 패하자, 광무제(역주: 劉秀)가 일어났다(漢元·成世, 道士言: ‘讖者云: <赤厄三七.>三七, 二百一十年, 有外戚之篡, 祚極三六, 當有龍飛之秀, 興復祖宗.’ 及莽篡漢, 漢二百一十年矣. 莽十八年而敗, 光武興焉.)”

49) 莽: 王莽을 말한다.

50) 赤伏再起: 光武帝가 한나라를 중흥시킨 것을 말한다. 《後漢書·光武帝紀上》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광무제가 앞서 장안에 있을 때, 동학인 彊華가 關中으로부터 《赤伏符》를 바치면서 말하였다. ‘劉秀가 병사를 발동하여 무도한 자들을 체포하니, 사방 오랑캐가 龍鬪 들판에 운집하고, 28년 무렵 화가 주가 된다(역주: 漢은 火德이므로 화가 주가 됨)’(光武先在長安時, 同舍生彊華自關中奉《赤伏符》, 曰: ‘劉秀發兵捕不道, 四夷雲集龍鬪野, 四七之際火爲主.’) 광무제가 28세 무렵에 왕망을 물리치고 한나라를 회복한 것이라는 뜻이다.

51) 丕業: 大業. 《史記·司馬相如傳》의 封禪書 “위대하고 위대하도다 이 일이며, 천하의 장관으로 왕자의 대업이니, 닳추어 볼 수 없다(皇皇哉斯事, 天下之壯觀, 王者之丕業, 不可貶也.)”에 그 용례가 있다. ○終光: 光復.

52) 勃然: 왕성한 모양.

<校記>

[周太王]: 太가 咸本⁵³)에는 大로 되어 있고, 繆本⁵⁴) · 郭本⁵⁵) · 劉本⁵⁶) · 王本⁵⁷) · 全唐文에는 모두 太로 되어 있다. 太로 되는 것이 옳다.

[毒浸]: 浸이 全唐文에는 侵으로 되어 있다.

[三七]: 宋本에는 원래 三十七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繆本⁵⁸) · 郭本⁵⁹) · 劉本⁶⁰) · 王本⁶¹) · 全唐文에는 모두 三七로 되어 있다. 이를 따른다.

삼가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여섯 聖人の 빛나는 교훈을 받드시어, 영원한 대업을 가지소서. 폐하에게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두 광채가 岐山의 남쪽에서 빛났으니, 옛날에 주나라 太王(古公亶父)이 일어나서서 이곳을 기반으로 帝業을 출발하셨으니, 天帝의 계시가 유사하게 내려서이지 어찌 인력으로 되는 것이겠사옵니까? 唐高祖에서 肅宗까지 150년 동안 전란이 일어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반역 무리 胡人 安祿山 · 史思明이 나타나 국호를 훔치고 중원을 탈취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로써 비록 崇山을 평지로 만들고 伊河 · 洛河 두 강을 메운다 해도 도성 백성들의 해골을 가릴 수는 없으며, 黃河를 터뜨리고 長安에 물을 뿌린다 해도 安 · 思의 반란군이 풍기는 누린내는 씻어낼 수 없나이다. 백성들에 대한 해독이 사방으로 스며들고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에 가득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은 힘세고 용감한 무사가 칼을 휘둘러야할 때가 된 것이고, 슬기와 지략 있는 신하가 책략을 이리저리 궁리해야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저 횡류를 막아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

53) 明鮑松이 編한 正德八年(서기 1513년) 自刻本 《李杜全集》83권 중의 《李翰林集》30卷.

54) 淸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30卷.

55)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30卷.

56)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42卷.

57)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의 조판본 《李太白全集》.

58) 淸 繆曰芑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30卷.

59) 《四部叢刊》을 영인한 郭雲鵬의 《分類補注李太白詩》30卷.

60) 明萬曆40年(서기 1612년) 劉世教의 《合刻分體李杜全集》중 《李翰林全集》42卷.

61) 乾隆間(서기 1736년-1796년)에 출판된 王琦가 주석을 한 《李太白文集》36卷 및 1977년 中華書局의 조판본 《李太白全集》.

덕을 빛낼 수 있겠나이까? 큰 간직 안녹산을 배지 못하면 신령스런 공적을 일으킬 수 없나이다. 현신 열 명이 周의 武王을 도왔기에 周나라가 크게 번창하였으며, 네 명의 흉악한 사람이 虞朝에 이르러 제거되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원흉을 제거하는 사람이 폐하가 아니면 그 누구겠나이까? 또한 天道에도 흥폐가 있고, 시대에도 흥망이 있는 법입니다. 漢나라가 210년에 이르렀을 때, 왕망이 또한 재앙이 되었는데, 光武帝 劉秀가 다시 일어나니 대업이 결국에는 빛나게 되었나이다. 폐하처럼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신령스런 분이 아니시면 어떻게 唐을 성대하게 중흥시킬 수 있겠나이까?

2.3 신은 人事의 득실을 헤아려

以臣料人事得失, 敢獻疑於陛下,⁶²⁾ 臣猶望愚夫千慮, 或冀一得.⁶³⁾ 何者?⁶⁴⁾ 賊臣楊國忠, 蔽塞天聰,⁶⁵⁾ 屠割黎庶⁶⁶⁾; 女弟席寵,⁶⁷⁾ 傾國弄權.⁶⁸⁾ 九土泉貨, 盡歸其室.⁶⁹⁾ 怨氣上激,⁷⁰⁾ 水旱薦臻⁷¹⁾; 重罹暴亂,⁷²⁾ 百姓力屈.⁷³⁾ 卽欲平殄

62) 獻疑: 질의하다. 의문을 나타내다. 본 문장에서는 난제에 대하여 계책을 바치다의 뜻이다. 《列子·湯問》의 “그 처가 질의하며 말하길, ‘당신의 힘으로 괴부의 언덕조차 덜지 못 할 텐데, 태행과 왕옥을 어찌한다는 것이요?’(其妻獻疑曰: ‘以君之力, 曾不能損魁父之丘. 如太行王屋何?’)”에 그 용례가 있다.

63) 一得: 하나쯤의 좋은 수. 자신의 소견이 아주 미약함을 나타내는 謙詞. 《史記·淮陰侯列傳》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가운데 반드시 하나쯤은 실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가운데 반드시 하나쯤은 좋은 수를 생각해 낼 수 있다(智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에 그 용례가 있다.

64) 何者: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에서는 ‘何者’는 ‘向者’의 잘못인 듯 하다고 하였다. ‘向者’는 여태까지, 줄곧 등의 뜻이다.

65) 蔽塞天聰: 황상의 이목을 가리다. 天聰은 황상의 이목, 황상의 보고 들음이 총명하다는 뜻이다.

66) 黎庶: 백성.

67) 女弟: 양귀비. ○席寵: 居寵. 총애를 차지하다. 《尚書·畢命》의 “이 은나라 여러 사람들, 총애를 차지한 지 오래되어(茲殷庶士, 席寵惟舊.)”에 그 용례가 있다.

68) 傾國은 미인의 의미로 양귀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양씨 일가가 천하를 전횡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隋唐演義》第79회에 “양씨의 권세가 천하를 압도하였다. 양귀비가 알현하는 저녁에는 霓裳羽衣曲을 연주하고 금비녀와 금장식함이 내려졌다(楊氏權傾天下, 貴妃進見之夕, 奏霓裳羽衣曲, 投金釵鈿盒.)”라고 하였다. ○弄權: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다.

賊,74) 恐難應期,75) 且圖萬全之計, 以成一舉之策,76)

<校記>

[何者]: '何'가 王本에서는 '何'아래 “마땅히 向으로 되어야 한다(當作向)”라는 주가 있다.

신은 人事의 득실을 헤아려 감히 폐하에게 계책을 올리나이다. 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 가운데 간혹 하나쯤은 좋은 수를 생각한다고 여겨지기를 앙망하나이다. 지금까지 불충한 신하 楊國忠은 황상의 이목을 가리고 백성들을 도살하여 왔나이다. 또한 양귀비는 총애를 차지하여 권력을 전횡하였나이다. 구주의 재물은 그들의 私邸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원망의 기운이 들끓어 하늘로 오르고, 水災와 旱災의 재앙이 수차례 이르렀나이다. 백성들은 여러 차례 暴亂을 만나서 그들의 재력은 고갈되었나이다. 두 해충(역주: 양국충·사사명)을 소멸시키려 하지만,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이에 주도면밀한 계책을 모색하여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책을 만들어야 하나이다.

69) 九土: 九州의 땅. ○泉貨: 泉幣로 고대 화폐의 일종이다. ○其室: 양국충의 私邸를 말한다.

70) 怨氣上激: 民怨이 들끓어 오른다.

71) 水旱: 水災와 旱災. 《資治通鑑》 제217권·《唐紀》33에 “천보13년에 지난해부터 수재와 한재가 계속되어, 關中에는 큰 기근이 있었다(天寶十三年, 自去歲水旱相繼, 關中大饑.)”라는 내용이 있다. ○薦: 여러 차례. ○臻: 이른다.

72) 罹: 병, 재앙 등에 걸리다.

73) 力屈: 물력, 재력, 인력 등이 고갈되다.

74) 平殄: 평정하여 소멸시키다. ○螽賊: 蠹賊으로도 쓴다. 벼 등의 농작물 뿌리, 싹 등을 해치는 두 종류의 해충이다. 백성을 해치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나쁜 사람이나 재앙을 비유한다. 문장에서는 양국충, 사사명을 말한다. 《詩·大雅·瞻卬》의 “해충이 해치듯 하니, 그 고통 끝임없어(蠹賊蠹疾, 靡有夷屈.)”에 그 용례가 있다. 《毛傳》에서는 “뿌리를 갉아먹는 것을 蠹, 마디를 갉아먹는 것을 賊이라 한다(食根曰蠹, 食節曰賊.)”라고 하였다.

75) 應期: 기간에 맞추다. 시기에 맞추다.

76) 一舉: 한 번의 행동, 일거에, 한 차례의 동작 단번에 등의 뜻이다. 《左傳·襄公 25년》의 “九世동안 이어온 벼슬 가문이 한 번의 일로 멸망한다는 것은 슬퍼할 일이다!(九世之卿族, 一舉而滅之, 可哀也哉!)”에 그 용례가 있다.

2.4 지금 황하 이복은

今自河以北, 爲胡所凌; 自河之南, 孤城四壘.⁷⁷⁾ 大盜蠶食,⁷⁸⁾ 割爲洪溝.⁷⁹⁾ 宇宙山兒峴,⁸⁰⁾ 昭然可觀. 臣伏見金陵舊都,⁸¹⁾ 地稱天險. 龍盤虎踞,⁸²⁾ 開扃自然.⁸³⁾ 六代皇居,⁸⁴⁾ 五福斯在.⁸⁵⁾ 雄圖霸跡, 隱軫由存.⁸⁶⁾ 咽喉控帶, 縈錯如

- 77) 四壘: 사방에 있는 적의 영루. 《禮記·曲禮上》에서 “사방에 적의 영루가 많아 천하가 태평하지 못하니, 이것은 경대부의 치욕이다(四郊多壘, 此卿大夫之辱也).”라고 하였다. 鄭玄은 “루는 군의 영루이다(壘, 軍壘)”라고 주를 달았다.
- 78) 大盜: 安祿山 등을 가리킨다. ○蠶食: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조금씩 침략하여 먹어 들어간다. 《詩魏風·碩鼠》의 序 중 “碩鼠는 과도한 세금을 풍자한 것이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과도한 세금을 매겨 백성들을 차츰차츰 집어삼키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碩鼠, 刺重斂也. 國人刺其君重斂, 蠶食於民.)”에 그 용례가 있는데,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蠶食이라는 것은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차츰차츰 먹음으로써 뽕잎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다(蠶食者, 蠶之食桑, 漸漸以食, 使桑盡也.)”라고 하였다.
- 79) 洪溝: 鴻溝를 말한다. 옛날 운하의 명칭으로 河南省에 있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치할 때의 경계지역이었다. 《史記·項羽本紀》에 “한왕은 다시 후공을 보내 항우를 설득하게 하였다. 항우는 이에 한나라와 조약을 맺고 천하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나누어진 홍구의 서쪽을 한나라 땅으로 하고, 그 동쪽을 초나라 땅으로 하였다(漢王復使侯公往說項王. 項王乃與漢約, 中分天下, 割鴻溝以西者爲漢, 鴻溝而東者爲楚.)”라고 하였다. 《史記集解》에서는 “문명이 말했다. ‘영양 땅 아래에 황하의 동남쪽 물을 끌어 와 홍구를 만들었다. 宋, 鄭, 陳, 蔡, 曹, 衛 땅을 통하였고, 濟水, 汝河, 淮河, 泗水와 초 땅에서 만나는데, 바로 지금의 관도수이다(文穎曰: 於滎陽下引河東南爲鴻溝. 以通宋, 鄭, 陳, 蔡, 曹, 衛, 與濟, 汝, 泗會於楚, 卽今官渡水也.)”라고 하였다.
- 80) 宇宙: 전국을 가리킨다. ○山兒峴: 불안한 모양. 王琦는 “山兒峴는 불안이다(山兒峴, 不安也.)”라고 주를 달았다.
- 81) 金陵舊都: 금릉은 지금의 南京으로 東吳, 晉, 宋, 齊, 梁, 陳의 수도였기 때문에 舊都라고 하였다.
- 82) 龍盤虎踞: 용이 휘감고 호랑이가 웅크리다.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막아내기 쉬운 지형을 비유한다. 《太平御覽》권156 晉 張勃의 《吳錄》에 “유비가 일찍이 제갈량을 서울(역주: 吳나라의 서울인 南京)로 보냈다. (제갈량이) 말릉(역주: 南京)의 산언덕을 보고, 탄식하여 말했다. ‘종산은 용이 휘감고 있고, 석두성은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니, 제왕의 거처지이다.’(劉備曾使諸葛亮至京, 因觀秣陵山阜, 乃嘆曰: “鍾山龍蟠, 石頭虎踞, 帝王之宅也.”)”라고 하였다.
- 83) 扃: 문지방. 《說文解字》에서 “扃은 밖에서 잠그는 빗장이다(扃, 外閉之關也.)”라고 하였다.
- 84) 六代: 吳, 東晉, 宋, 齊, 梁, 陳을 가리킨다.
- 85) 五福: 다섯 가지 복. 《尙書·洪範》에 “오복: 첫째는 장수하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셋째는 강녕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넷째는 훌륭한 덕을 닦는 것을 말하고, 다섯째는 천명을 다 살고 죽는 것이다(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라고 하였다. 《後漢書章帝紀》에서는 “소에서 말하였다. ‘……그런 후에 공손히 제사를 지내고, 오복의 경사를 누리고, 봉황이 와서 춤을 추는 태평의 길조를 얻

繡.⁸⁷⁾ 天下衣冠士庶,⁸⁸⁾ 避地東吳, 永嘉南遷,⁸⁹⁾ 未盛於此.

<校記>

[洪溝]: ‘洪’은 咸本에서는 ‘鴻’으로 되어 있다.

[山兒岨]: 송축본에서는 원래 ‘嶠岨’로 되어 있는데, 繆本⁹⁰⁾과 全唐文 또한 이와 같다. 郭本·劉本·王本은 ‘山兒岨’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다.

[隱軫由存]: ‘軫’은 《校注》에서는 ‘賑’으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由’은 全唐文에서는 ‘猶’로 되어 있고, 何校陸本⁹¹⁾에서는 ‘猶’로 고쳐놓았는데, 이를 따른다.

지금 황하 이북은 오랑캐가 업신여기고 있고, 황하 이남은 외로운 성 주위로 사방에 영루가 들어차 있습니다. 큰 도둑들이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며, 흉구로 경계를 삼아 땅을 할거하고 있나이다. 이로써 천하가 불안해지는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나이다. 신이 살펴보니, 옛 도읍지 금릉은 그 땅이 천연의 요새라고 칭해지나이다. 용이 휘감고 있고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고, 열고 닫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여섯 조대를 걸쳐 황제가 거하였으며, 다섯 가지 복이 여기에 있었나이다. 웅대한 포부와 패업의 자취가 있었으며, 그 성대함이 아직도 남아 있나이다. 지세는 험준하여 사람의 목구멍처럼 전체를 제어하고 있으며, 물이 휘감고 산이 교차한 것이 수를 놓은 것 같나이다. 천하의 벼슬아치, 선비

네. (詔曰: ‘……然後敬恭明祀, 膺五福之慶, 獲來儀之貺.’)라고 하였다.

86) 隱軫: 성대한 모양. 揚雄 <蜀都賦>의 “수레의 끌채도 나란히 바퀴통도 나란히 달리니, 성대하고도 유유하구나(方輶齊轂, 隱軫幽輶.)” 및 謝靈運 <入東道路>의 “성대하다. 뿅뿅이 들어선 마을이 아득하다. 요원한 저 강과 바다(隱軫邑里密, 緬邈江海遼.)”에 그 용례가 있다.

87) 縹緖: 물이 휘감고 산이 교차하다.

88) 衣冠: 옷과 갓의 뜻이나 여기에서는 벼슬아치를 비유한다.

89) 永嘉: 晉懷帝의 연호. 王琦는 “영가는 진 회제의 연호이다. 영가 5년에 유요가 낙양을 함락시켰는데, 관리와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3만 여인이었다. 중원의 벼슬아치들은 줄지어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장강의 왼쪽으로 피난하였다(永嘉, 晉懷帝年號. 永嘉五年, 劉曜陷洛陽, 百官士庶死者三萬餘人. 中原衣冠之族, 相率南奔, 避亂江左.)”라고 주를 달았다.

90) 攄 繆曰 攄의 송축본을 영인한 《李翰林集》30卷.

91) 攄의 何焯이 陸元다가 간행한 《李翰林集》10卷에 교주하고 跋을 쓴 책.

와 백성들이 난을 피해 동오 땅으로 왔던 ‘영가 남천 시기’라도 이때보다 성대하지는 못하나이다.

2.5 신은 또한 탕부터 반경까지

臣又聞湯及盤庚，五遷其邑，⁹²⁾ 典謨訓誥，⁹³⁾ 不以爲非。衛文徙居楚丘，⁹⁴⁾ 風人流詠。⁹⁵⁾ 伏惟陛下因萬人之蕩析，⁹⁶⁾ 乘六合之講張，⁹⁷⁾ 去扶風萬有一危之近邦，⁹⁸⁾

92) 五遷其邑: 도읍지를 다섯 번 옮기다. 《尙書·盤庚》序에 “반경이 다섯 번째로 천도를 하여, 장차 박은을 다스리려 하였다. 백성들은 탄식하며 서로 임금에게 원망을 하였다. <盤庚> 3편이 지어졌다(盤庚五遷, 將治亳殷. 民咨胥怨. 作<盤庚>三篇)”라고 하였으며, 《古文尙書》에서는 “탕왕부터 반경까지 무릇 천도를 다섯 번 하였다(自湯至盤庚, 凡五遷都.)”라고 하였다. 《史記·殷本紀》에서는 “황제 반경 때 은나라는 이미 황하 북쪽에 도읍했는데, 반경이 황하 남쪽으로 건너 가 다시 성탕의 옛 도읍에 거처하려고 하였다. 다섯 번이나 천도하여 정해진 거처가 없었다(帝盤庚之時, 殷已都河北, 盤庚渡河南, 復居成湯之故居, 迺五遷, 無定處.)”라고 하였다. 《史記正義》에서는 “탕이 남박에서 북박으로 천도하고, 중정이 오로 천도하고, 하단갑이 상으로 천도하고, 조율이 경으로 천도하고, 반경이 황하를 건너 남쪽으로 가 서박에 천도하니, 이것이 다섯 번 천도한 것이다(湯自南亳遷北亳, 仲丁遷斂, 河亶甲居相, 祖乙居耿, 盤庚渡河, 南居西亳, 是五遷也.)”라고 하였다.

93) 典謨訓誥: 《尙書》의 <堯典>, <大禹謨>, <伊訓>, <湯誥>편. 《尙書》孔安國의序에 “典, 謨, 訓, 誥, 誓命의 글이 무릇 백편이다(典, 謨, 訓, 誥, 誓命之文凡百篇.)”라고 하였다.

94) 衛文徙居楚丘: 위문공이 초구에 옮겨 거주하다. 《詩·鄘風·定之方中》毛의序에 “《定之方中》은 위문공을 찬미한 것이다. 위나라가 북쪽 오랑캐에게 멸망을 당해, 동쪽으로 옮겨 황하를 건너, 조율의 들관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제환공이 오랑캐를 물리치고 위나라를 봉하였다. 문공은 초구로 옮겨가 거처하면서, 비로소 성과 시장을 만들고, 주택을 건조하였는데, 때와 제도에 맞게 하니, 백성들이 기뻐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었다(《定之方中》, 美衛文公也. 衛爲狄所滅, 東徙渡河, 野處漕邑, 齊桓公攘夷狄而封之. 文公徙居楚丘, 始建城市而營宮室, 得其時制, 百姓悅之, 國家殷富焉.)”라고 하였다.

95) 風人: 시인.

96) 蕩析: 정처가 없다. 《尙書·盤庚下》에서 “지금 나의 백성들은 헤어져 살고 있고 정해진 거처도 없다(今我民用蕩析離居, 罔有定極.)”라고 하였다. 《尙書正義》에 “지금 나의 이 곳 백성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헤어져 정처 없이 살고 있어, 안정된 거처가 없다. 나는 지금 옮겨서 백성들을 그 가운데 살코자 한다. 천도의 뜻을 말하는 것은 전대 임금의 공로를 크게 하고 백성들의 거처를 안정시키려고 함이다.(今我在此之民用播蕩分析離其居宅, 無有安定之極, 我今徙而使之得其中也. 說遷都之意, 亦欲多大前人之功, 定民極也.)”라고 하였다.

97) 六合: 천지와 사방, 즉 천하 혹은 우주를 말한다. ○講張: 轉張과 통하는 뜻이다. 《文選》劉琨 <答盧諶書>의 “요사이 놀랍고 두려워,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 놓였다(自頃轉張, 困

就金陵太山必安之成策.⁹⁹⁾ 苟利於物,¹⁰⁰⁾ 斷在宸衷.¹⁰¹⁾

신은 또한 탕부터 반경까지 도읍지를 다섯 번이나 옮긴 것에 대해 《상서》의 <堯典> · <大禹謨> · <伊訓> · <湯誥> 편에서도 그러다고 하지 않았다고 들었나이다. 위문공이 초구에 옮겨 거주하게 된 것을 시인은 시를 지어 널리 읊조렸나이다. 삼가 옳드려서 생각건대, 폐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져 살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고, 천하가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지극히 위험한 扶風과 같은 近邦을 떠나서 금릉과 태산으로 옮기신다면 반드시 태평을 이루는 고명한 계책이 되실 것입니다. 진실로 만물을 이롭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 결단은 폐하의 마음에 달려 있나이다.

2.6 더 나아가 그곳에서는

況齒革羽毛之所生,¹⁰²⁾ 榘枘豫章之所出,¹⁰³⁾ 元龜大貝,¹⁰⁴⁾ 充物其中;¹⁰⁵⁾ 銀

於逆亂)에 轉張의 용례가 있는데, 李善이 “轉張은 놀랍고 두려워하는 모양이다(轉張, 驚懼之貌)”라고 주를 달았다.

98) 去: 떠나다. ○萬有一危: 극히 위험함. 만에 또 한 차례의 위험.

99) 太山: 泰山. 여기에서는 안정되고 굳건함을 상징한다. ○成策: 고명한 계책.

100) 苟: 만약. ○利於物: 만물에 유리하다. 《易·乾卦》에 “사물을 이롭게 하여 의로움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다(利物足以和義).”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이로움, 의로움의 조화라는 것은 하늘이 여러 가지 사물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어, 사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적절함을 가지게 되어, 조화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利者, 義之和者, 言天能利益庶物, 使物各得其宜而和同也.)”라고 하였다.

101) 斷在宸衷: 斷은 결단, 판단 등의 의미. ○宸衷: 宸은 왕위, 제왕의 대칭. 衷은 내심, 宸衷은 제왕의 마음. 《魏書·王椿傳》上疏 “제왕 마음의 진실함이 조칙에 담겨 있네(宸衷懇切, 備在絲綸.)”에 그 용례가 있다.

102) 況: 더 나아가

103) 況齒革羽毛之所生, 榘枘豫章之所出: 하물며 상아, 무소 가죽, 새 깃털, 들소 꼬리가 산출되고, 편나무, 개오동나무, 녹나무가 생산되는 곳이다. 《尚書·禹貢》에 “회수와 바다 사이가 양주이다.……그 공물은 금속 세 가지와 옥, 옥돌, 살대, 큰 대 및 상아와 가죽과 새 깃털과 들소 꼬리와 나무이다(淮海惟揚州, ……厥貢惟金三品, 瑤琨篠簜, 齒革羽毛惟木.)”라고 하였다. 《古文尚書》에서 “齒는 상아; 革은 무소 가죽; 羽는 새 깃털; 毛는 들소 꼬리. 木은 편나무, 개오동나무, 녹나무이다(齒, 革(象)牙; 革, 犀皮; 羽, 鳥羽; 毛,

坑鐵冶,¹⁰⁶ 連縣相屬。剗銅陵爲金穴,¹⁰⁷ 煮海水爲鹽山。¹⁰⁸ 以征則兵強, 以守則國富。¹⁰⁹ 橫制八極,¹¹⁰ 克復兩京,¹¹¹ 俗畜來蘇之歡,¹¹² 人多僂后之望。¹¹³ 陞下西以峨眉爲壁壘¹¹⁴, 東以滄海爲溝池。¹¹⁵ 守海陵之倉, 獵長洲之苑。¹¹⁶ 雖

旄牛尾。木, 樅, 梓, 豫章。”라고 하였다.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편나무, 개오동나무, 녹나무 이 세 나무는 양주의 좋은 나무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들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물로 바친 나무는 이것들만은 아니다(樅, 梓, 豫章此三者是揚州美木, 故傳舉以言之, 所貢之木, 不止於此.)”라고 하였다.

- 104) 元龜: 큰 거북. 《尙書·大禹謨》의 “그런 후후에 큰 거북에게 알린다(昆命於元龜.)”에 그 용례가 있는데, 孔穎達은 《五經正義》에서 “元龜는 큰 거북을 일컫는다(元龜謂大龜也.)”라고 하였다. ○大貝: 거거 조개. 《文選》 郭璞<江賦>에 “자색 조개 거거 조개처럼 커네(紫蚘如渠.)”라고 하였는데, 李善이 “大貝는 蚘이라고 한다.……《尙書大傳》에서 ‘문왕이 유리에 갇혀 있을 때, 산의생이 장강과 회하 사이 포구로 가서 거거 조개같은 커다란 조개를 구해서, 주왕에게 바쳤다’(大貝曰蚘.……《尙書大傳》曰:‘文王囚於羑里, 散宜生之江淮之浦, 而得大貝如車渠, 以獻紂.’)”라고 주를 달았다.
- 105) 充牣其中: 그 가운데에 가득 차 있다. 《文選》 司馬相如의 <子虛賦> “비범하고 기이한 사물, 다른 지역의 특이한 물건, 특별하고 기이한 조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비늘이 모인 것처럼 그 가운데 충만하니 그것을 말한다면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若乃儻儻瑰璋, 異方殊類, 珍怪鳥獸, 萬端鱗碎, 充牣其中, 不可勝記.)”에 그 용례가 있다.
- 106) 銀坑鐵冶: 은광과 철 제련소.
- 107) 剗: 鑿의 뜻이다. 王琦는 “剗은 削이다. 銅陵은 구리가 나오는 산이고, 金穴은 쇠를 저장한 굴이다(剗, 削也. 銅陵, 出銅之山, 金穴, 藏金之窟.)”라고 하였다.
- 108) 煮海水爲鹽山: 바닷물을 끓여 소금 산을 만든다. 《漢書·吳王濞傳》에 “오 땅 예장군에 구리 산이 있어, 천하의 도망자들을 불러 와 몰래 돈을 만들고, 동쪽에서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吳有豫章郡銅山, 卽招致天下亡命者盜鑄錢, 東煮海水爲鹽.)”라고 하였다. 앞의 구와 이 구는 물산이 아주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 109) 以征則兵強, 以守則國富: 이상의 물자의 풍부 등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정벌을 한다면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고, 방어를 한다면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음의 뜻이다
- 110) 八極: 八方的 멀고 너른 범위, 온 세상 또는 먼 곳을 이르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八紘, 八荒이라고도 한다. 八方은 東·西·南·北·東南·西南·西北·東北을 가리킨다.
- 111) 克復: 공격하여 수복하다. 적에게 점령당한 長安과 洛陽을 공격하여 수복하디는 뜻이다. ○兩都: 장안과 낙양을 말한다.
- 112) 俗: 세속의 사람. ○畜:蓄과 통함. 쌓다.○蘇: 다시 소생함. ○來蘇之歡: 소생의 기쁨.
- 113) 人多僂后之望: 임금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다. ○僂: 기다리다. ○后: 임금. 《尙書仲虺之誥》에 “처음 정벌하기를 갈나라 부터 하였다. 동쪽을 정벌하니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고, 남쪽을 정벌하니 북쪽 오랑캐가 원망하였다. 그들이 말하길 ‘어찌 유독 우리들을 뒤에 정벌하십니까?’ 정벌하러 가는 곳의 백성들은 집에 경사가 났다고 하며 말하길 ‘우리의 임금님을 기다렸는데, 임금님이 와서 우리들은 소생할 수 있게 되었네.’(初征自葛, 東征西夷怨, 南征北狄怨. 曰:‘奚獨後予’ 攸徂之民, 室家相慶, 曰:‘僂予后, 後來其蘇.’)”라고 하였다. 《孔傳》에서 “탕왕이 그곳에 가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길 ‘우리 임금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임금님이 오시면 소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湯所往之, 民皆喜曰:‘待我君來, 其可蘇息.’)”라고 하였다.
- 114) 壁壘: 성벽과 성루

上林·五柞,¹¹⁷⁾ 復何加焉。上皇居天帝運昌之都,¹¹⁸⁾ 儲精眞之一之境。¹¹⁹⁾ 有虞則北

- 115) 滄海: 넓고 큰 바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滄海를 황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 溝池: 성 밖을 둘러싼 해자.
- 116) 守海陵之倉, 獵長洲之苑: 《漢書·枚乘傳》에 “저쪽으로 곡식을 옮기는데, 육지에는 수레가 끌이질 않고, 지나가는 배가 강을 가득 채우지만, 대왕님의 해릉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 보다는 못합니다. 上林苑을 건조하고, 그 가운데 이궁을 만들고, 감상하고 즐기는 물건을 쌓아놓고, 진귀한 날짐승과 들짐승을 가두어놓고 키우지만, 대왕님의 長洲苑보다는 못합니다. (轉粟西鄉, 陸行不絕, 水行滿河, 不如海陵之倉. 修治上林, 雜以離宮, 積聚玩好, 圍守禽獸, 不如長洲之苑.)”라고 하였다. 이에 憵灼은 “海陵에서, 바다 가운데 산을 창고로 삼았다(海陵, 海中山爲倉也.)”라고 하였고, 臣瓚은 “海陵은 현의 명칭이다. 오왕이 건조한 큰 창고가 있다(海陵, 縣名也, 有吳大倉.)”라고 하였다. 服虔은 長洲가 “오나라의 정원(吳苑).”이라고 하였고, 孟康은 “강의 모래톱으로 정원을 만들었다(以江水洲爲苑也.)”라고 하였으며, 韋昭는 “장주는 오 땅의 동쪽에 있다(長洲在吳東.)”라고 하였다. 《文選》의 左思 <吳都賦>에서는 “고소에 지은 높은 누대, 사방에 우뚝 지어졌는데, 밀물 썰물 드나드는 濬池와 가깝고, 장주의 무원을 끼고 있네. 동산의 짐들을 유심히 보니, 옥과 보물이 눈에 가득 차네. 해릉의 창고를 찾아서 보니, 저장된 지 오래된 쌀이 넘치는 도다. 종묘를 무창에 지었고, 이궁을 건립에 만들었네(造姑蘇之高臺, 臨四遠而特建, 帶朝夕之濬池, 佩長洲之茂苑. 窺東山之府, 則瓊寶溢目, 觀海陵之倉, 則紅粟流行. 起寢廟於武昌, 作離宮於建業.)”라고 하였다.
- 117) 上林: 한나라 때의 林苑인 上林苑으로, 원래 진시황이 창설하고 한 무제가 확장하고 수리한 것으로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 五柞: 한나라 때의 궁전 명칭으로 扶風에 있던 五柞宮을 가리킨다.
- 118) 上皇: 현종을 말한다. ○ 天帝: 옥황상제. ○ 天帝運昌之都: 옥황상제가 경사를 내린 땅으로 蜀의 수도 成都를 가리킨다. 《文選》 권4 左思의 <蜀都賦>에서 “멀리는 岷山の 정기가 있으며, 위로는 井宿(역주: 28宿의 22번째 별자리)가 있는 곳으로, 옥황상제가 때를 운행하며 경사를 내렸네(遠則岷山之精, 上爲井絡, 天帝運期而會昌.)”라고 했는데, 劉淵林이 이에 “《河圖括地象》에서 이르길 ‘岷山の 땅은 위로는 井宿가 있는 곳으로, 옥황상제가 경사를 내려주고, 신이 복을 준다. 위가 하늘의 井宿라는 것은 岷山の 땅이 위로는 東井(역주: 井宿)이 이어져 있고, 岷山の 정기가 위로는 하늘의 井星(역주: 井宿)이 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昌은 경사로, 옥황상제가 여기에 경사를 내리고 복을 준다는 말하는 것이다(《河圖括地象》曰: 岷山之地, 上爲井絡, 帝以會昌, 神以建福. 上爲天井, 言岷山之地, 上爲東井維絡, 岷山之精, 上爲天之井星也.’昌, 慶也, 言天帝於此會慶建福也.)”라고 주를 달았다.
- 119) 儲精: 정신을 모오다. 《文選》 권7 揚雄의 <甘泉賦> 중 “정신을 모오고 은혜를 드리우다(儲精垂恩.)”에 李善이 “정신을 모오는 것을 말한다(言儲蓄精神.)”라고 주를 달았다. ○ 眞一: 도가의 용어. 도의 본성과 무위자연을 유지함을 가리킨다. 이후에는 양생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抱朴子·內篇·地眞》에 “일찍이 황제가아미산에 이르러, 옥당에서 천진황인을 만나 진일의 도를 삼가 물었다. 황인이 말했다. ‘그대는 이미 사해의 입급인데, 또 장생까지 구하려하니, 또한 지나친 탐욕이 아닌가? 입급인 것과 장생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 되니 하나하나 갖추어 말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하나의 방면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장생의 신선술이란 오직 금단을 복용하는 것만이 있다. 형체를 유지하고 사악한 것을 없애는 것으로는 오직 진일만이 있다. 그래서 고인들은 그것을 특별히 중시하였다.베풀지도 주지도 않으면 그 자리를 언제나 편안하게 지킬 수 있고,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면 그 집에서 언제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한

閉劍閣, 南扃瞿塘, 蚩尤·共工,¹²⁰⁾ 五兵莫向,¹²¹⁾ 二聖高枕,¹²²⁾ 人何憂哉! 飛章問安, 往復巴峽,¹²³⁾ 朝發白帝, 暮宿江陵.¹²⁴⁾ 首尾相應, 率然之舉.¹²⁵⁾ 不勝屏營

가하게 지낼 수도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다면, 언제나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온전함을 유지하고 참됨을 지키는다면 신령과 통할 수가 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먹는 것을 줄이면, 언제나 안식함에 머무를 수 있다. 흰 칼이 목에 닿아도 온전함을 생각한다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온전함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움은 끝까지 변함이 없음에 있다. 온전함을 지켜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무궁할 수 있다. 물에서는 나쁜 들짐승을 피할 수 있고, 물에서는 이무기를 물리칠 수 있다. 도깨비와 독을 지닌 벌레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귀신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칼도 감히 상해를 입히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진일의 대략적인 모습이다(昔黃帝……到峨眉山, 見天真真人於玉堂, 請問眞一之道。真人曰: “子既君四海, 欲復求長生, 不亦貪乎? 其相覆不可具說, 粗舉一隅耳。夫長生仙方, 則唯有金丹, 守形卻惡, 則獨有眞一, 故古人尤重也。……不施不與, 一安其所; 不遲不疾, 一安其室; 能暇能豫, 一乃不去; 守一存眞, 乃能通神; 少欲約食, 一乃留息; 白刃臨頸, 思一得生; 知一不難, 難在於終; 守之不失, 可以無窮; 陸避惡獸, 水卻蛟龍; 不畏魍魎, 挾毒之蟲; 鬼不敢近, 刃不敢中。此乃眞一之大略也。”)라고 하였다.

- 120) 蚩尤·共工: 중국 신화 속의 인물들. 《史記·五帝本紀》에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황제는 제후들로부터 군사를 징집하여 치우와 탁록의 들판에서 전쟁을 하여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라고 하였다. 《史記索隱》에서는 “《管子》에서 말할지 ‘치우는 여산의 철을 구해서, 5 종류의 무기를 만들었다(《管子》曰: ‘蚩尤受盧山之金而作五兵.’)”라고 하였다. 《史記正義》에서는 “《龍雨河圖》에 이르러 ‘황제가 섭정 시에 치우의 형제가 81인이 있었는데, 모두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말을 하였으며, 머리는 구리로 되어 있었고, 이마는 쇠로 되어 있었다. 모래를 먹었고, 감찰활동의 무기를 만들어, 천하에 위세를 떨쳤으며, 무도하게 사람들을 주살하였고, 너그럽고 착하지 못했다. 온 백성들이 황제가 천자의 일을 행하기를 바랐고, 황제는 인의로써 치우를 제어할 수 없어,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였다. 하늘이 현녀를 내려 보내 황제에게 병부를 하사하여 치우를 제압하였다. 황제는 그 다음에 병사를 이끌고 사망을 정복하였다(《龍雨河圖》云黃帝攝政, 有蚩尤兄弟八十一人, 並獸身人語, 銅頭鐵額, 食沙石子, 造立兵仗刀戟大弩, 威振天下, 誅殺無道, 不慈仁。萬民欲令黃帝行天子事, 黃帝以仁義不能禁止蚩尤, 乃仰天而歎。天遣玄女下授黃帝兵信神符, 制伏蚩尤。帝因之主兵, 以制四方.’)”라고 하였다. 《淮南子·天文訓》에서는 “일찍이 공공이 전욱과 임금에 되려고 다투다가 패하여 화가 나 불주산을 들이박았다(昔者共工與顓頊爭爲帝, 怒而觸不周之山.)”라고 하였는데, 高誘가 여기에 “共工은 관명이다. 북희와 신농 간에 관리였다. 그 후의 자손들이才智와 형법에 의해 강대해지자 전욱 및 황제의 자손들과 세위를 다투었다(共工, 官名, 伯於宓義, 神農之間, 其後子孫任智刑以強, 故與顓頊, 黃帝之孫爭位.)”라고 주를 달았다.

- 121) 五兵: 다섯 가지 무기. 《周禮·夏官·司兵》에 “다섯 가지 무기와 다섯 가지 방패를 관장한다(掌五兵五盾.)”라고 하였다. 鄭玄이 이에 鄭司農의 말을 인용하여 “五兵은 창, 세모창, 미늘창, 酋矛(역주: 약 4.6m의 긴 창), 夷矛(역주: 약 5.5m의 긴 창)이다(五兵者, 戈·矛·戟·酋矛·夷矛也.)”라고 주를 달았다.

122) 高枕: 베개를 높이 하다. 걱정이 없음을 비유한다.

123) 巴峽: 巴東의 三峽.

124) 朝發白帝: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다. 이것은 이백의 시 <早發白帝城>과 관련이 있다. 이 시는 시인이 ‘안사의 난(서기 755년) 이후 숙종의 아우인 永王 李璣의 막료가 되었으

瞻雲望日之至. 126)

<校記>

[榭栊]: ‘栊’은 王本에서는 ‘楠’으로 되어 있다.

[充勃]: ‘勃’은 陸本에서는 ‘扱’으로 되어 있다.

[連縣]: ‘連’은 劉本에서는 ‘運’으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後后]: ‘溪’는 송측본에서는 원래 ‘溪’로 되어 있다. 繆本咸本陸本郭本王本에서는 ‘溪’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이것이 옳다고 하여 이것으로 바꾸었다.

[巴峽]: ‘巴’는 劉本에서 ‘邑’으로 되어 있는데, 詹鐸은 劉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나, 영왕의 모반에 연루되어 지금의 貴州省 서북부의 夜郎으로 유배 가는 도중 백제성에 도달했을 때 사면을 받고 백제성을 떠나 삼협을 지나 강릉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한 시이다.

- 125) 率然: 뱀의 일종. 《孫子·九地》에 “용병을 잘 하는 것을 비유하여 술연과 같다고 한다. 술연이란 상산의 뱀이다. 그것의 머리를 치면 그것의 꼬리로 대어들고, 그것의 꼬리를 치면 그것의 머리로 대어들며, 그것의 가운데를 치면 그것의 머리와 꼬리가 함께 대어든다(善用兵譬如率然. 率然者常山之蛇也. 擊其首則尾至, 擊其尾則首至, 擊其中則首尾俱至.)”라고 하였다.
- 126) 屏營: 황공해 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이에 대한 풀이 및 용례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廣雅》에서는 “屏營은 황급하고 두려워함이다(屏營, 怔忡也.)”라고 하였고, 《國語》에서는 “산림 속에서 황급해 하며 방황하였다(屏營彷徨於山林之中.)”라고 하였으며, 또한 《後漢書》에서는 “아침저녁으로 황공하여 세울 바를 알지 못했다(夙夜屏營, 未知所立.)”라고 하였다. 宋·吳曾《能改齋漫錄》卷二 <表文末雲屏營>에서는 “지금 <世表文> 말에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屏營 두 글자는 《國語》에 보이는데, 申胥가 이르길 ‘옛날 楚나라 靈王이 홀로 가다가, 산림 속에서 황급해하며 방황하였습시다’라고 하였다. 東漢의 劉陶가 議를 올려 말하길, ‘두려워 방황하다가, 잠을 청하여도 잘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任昉의 <與梁高祖牋>에서도 또한 ‘은혜 입을 것을 차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황공하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今《世表文》末云: ‘屏營之至.’ 屏營二字見《國語》, 申胥曰: ‘昔楚靈王獨行屏營.’ 東漢劉陶上議曰: ‘屏營彷徨, 不能監寐.’ 而任昉《與梁高祖牋》亦云 ‘不勝荷戴屏營之至.’)”로 되어 있다. ‘屏營은 대개 ‘황공하다’는 뜻으로 후인의 表·箋에 ‘간절하고 황공한 마음 금할 수 없어(激切屏營.)’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瞻雲望日: 원래는 “현명한 임금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의 뜻이었는데, 후에는 “임금을 그리워함”을 비유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晉書·張軌傳》의 “임금을 그리워하며, 홀로 괴로워하고 마음이 상하네(瞻雲望日, 孤憤義傷.)”에 그 용례가 있다.

[瞻雲]구 이하: 咸本·陸本·郭本·劉本·王本·全唐文에서는 모두 “삼가 우선 표를 올려 충정을 드러내어 아뢰입니다(謹先奉表陳情以聞)”가 덧붙여 있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는 상아, 무소 가죽, 새 깃털, 들소 꼬리가 산출되고 편나무, 개오동나무, 녹나무가 생산되는 곳이며 큰 거북과 거저 조개가 그 가운데 가득차 있나이다. 은광과 철 제련소가 이어져 서로 연결되어 있나이다. 동이 나오는 산을 깎아 금 저장한 굴로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 산을 만들 수 있나이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에 의거하여 정벌을 한다면 군대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방어를 한다면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나이다. 가로질러 팔방을 제어하고, 점령당한 장안과 낙양 두 京都를 공격하여 수복할 수 있나이다. 백성들은 소생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간직하고 있고, 임금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나이다. 폐하께서는 서쪽에는 아미산으로 성벽과 성루로 삼고, 동쪽으로는 황해로 해자를 삼고 계시나이다. 금은보화 가득한 해릉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고, 온갖 볼거리와 수많은 짐승이 있는 장주원에서 사냥하고 계시나이다. 비록 상림원과 오조궁이라 한들 여기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나이까? 폐하께서는 옥황상제가 경사를 내리고 복을 준 땅에 계시고, 정신을 모으고 도의 근본을 지키는 곳에 계시나이다. 우환이 있으면 북쪽으로는 검각을 단으시고, 남쪽으로는 구당으로 빗장거시면, 치우와 공공이 다섯 가지 무기를 가지고 덤벼도 끄떡없나이다. 현종 숙종 두 황제께서 배개 높여 주무시니, 무슨 근심이 있겠나이까? 급히 현종 황제께 글을 올리고 안부를 묻고, 파동의 삼협을 왕복하고, 아침에 백제성을 떠났다가 저녁에 강릉으로 돌아와 숙박하였나이다. 축 땅에 계시는 현종 황제와 금릉에 계시는 숙종께서는 서로 호응이 되니, 술연이라는 뱀의 행동과 같나이다. 황공하옵게도 임금이 그리운 마음 참아낼 수가 없나이다.

2.7 解説

詹鐸의 《李白詩文系年》에 의거하면, 본 문장은 至德2년(757), 李白의 나이 57세에 썼다. 이백은 金陵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 그 첫째 이유는 금릉의 산수자연 및 명승고적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는 대략 5차례 정도 금릉에 간 적이 있으며 이곳에 대해 50여수의 시를 남겼다.¹²⁷⁾ 그 둘째 이유는 금릉은 이백이 그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백은 한 때 永王 李璘을 따르며 금릉을 근거지로 새로운 정치이상을 펼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皇室의 분쟁으로 永王 李璘의 군대가 적으로 간주되어 永王 李璘이 살해되고 이백도 체포되어 溇陽의 감옥에 갇혔다. 이백은 御史中丞 宋若思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그의 幕府參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백은 宋若思와 시를 주고받았고, 그를 대신하여 <爲宋中丞請都金陵表>를 지었다. 이 문장은 이백이 송약사를 대신하여 肅宗 李亨에게 금릉으로 천도를 청하는 글이지만, 사실 이백의 정치 이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백은 금릉을 長安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수도가 될 수 있다고 여겼으며 또한 이곳을 그의 정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는 <爲宋中丞請都金陵表>에서 금릉이 수도로서 여러 조건들 즉 물산의 풍부, 교통의 이점, 인재의 많음 등을 모두 갖추었지만, 무엇보다 “그 땅이 천연의 요새로 칭해지고 용이 휘감고 있고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며 열고 닫는 것이 자유롭다”라는 地勢의 유리한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금릉은 六朝의 수도로 여전히 제왕의 기운이 서린 점을 강조하여 “여섯 조대를 걸쳐 황제가 거하였으며, 다섯 가지 복이 이에 있었나이다. 웅대한 포부와 패업의 자취가 있었으며, 그 성대함이 아직도 남아 있다. 라고 하였다. 금릉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모두 그의 천도에 대한 강한

127) 그 가운데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은 <登金陵冶城西北謝安墩>·<登金陵鳳凰臺>·<金陵鳳凰臺置酒>·<蘇臺覽古> 등이다. 또한 명구는 “蒼蒼金陵月，空懸帝王州。”(<月夜金陵懷古>), “朝別朱雀門，暮棲白鷺洲。波光搖海月，星影入城樓。”(<宿白鷺洲寄楊江寧>), “北堂見明月，更憶陸平原。”(<金陵王處士水亭>), “金陵夜寂涼風發，獨上高樓望吳越。白雲映水搖空城，白露垂珠滴秋月。”(<金陵城西月下吟>), “鍾山龍蟠走勢來，秀色橫分歷陽樹。”(<金陵歌送別范宣>) 등이다.

열망을 말하는 것이다.

문장은 여섯 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단락은 사직은 영원할 수 없는 것으로, 명철한 군주는 지키지만 어두운 군주는 잃는다고 하였다. 치국의 이치를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肅宗에 대한 염원이다. 둘째 단락은 周의 太王이 岐山의 남쪽에서 제업을 일으키고 光武帝 劉秀가 漢을 중흥시킨 것을 사례로 들어서 肅宗이 安史의 난을 평정시키고 唐을 중흥시킬 것을 희망하였다. 셋째 단락은 楊國忠이 제왕의 총명을 가리고 楊貴妃가 총애를 차지하여 권력을 전횡하여 안사의 난을 불러왔음을 말하였다. 이에 시기를 맞추어 安祿山·史思明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금릉으로의 천도에 대한 일종의 암시이다. 넷째 단락은 河南·河北이 적에게 점령당하고 형세가 매우 불리함을 말하였다. 이에 금릉의 천연의 지리적 이점을 말하고 이곳으로 천도를 주청하였다. 이 단락의 “金陵舊都，地稱天險。龍盤虎踞，開局自然。六代皇居，五福斯在。雄圖霸跡，隱軫由存。咽喉控帶，縈錯如繡”는 금릉의 지세, 경관, 명승에 대한 뛰어난 묘사이며, 이러한 자구들이 <金陵三首> 등 금릉시 등에 보인다. 다섯째 단락은 湯·盤庚·衛文公 등이 천도를 한 역사 사례를 들어 금릉으로의 천도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좋은 계책임을 강조하였다. 이 단락 말미에서 “만물을 이롭게 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은 폐하의 마음에 달려 있나이다.”라고 하여 숙종에게 은근하면서도 간절하게 천도를 촉구하고 있다. 여섯 째 단락은 금릉의 물산의 풍부, 군사 및 지리적 요충지, 교통의 편리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금릉으로의 천도의 이점을 말하고 있다. 이 단락의 말미에서는 금릉으로의 천도는 현종, 숙종 두 황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부자관계 역시 서로 호응이 된다고 함으로써 숙종에게 금릉으로의 천도를 심리적, 정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 단락의 “朝發白帝，暮宿江陵”은 이백의 <早發白帝城>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早發白帝城>을 이해하는 데 중요 자료가 된다. <早發白帝城>은 이백이 안사의 난 이후 숙종의 아우인 永王 李璘의 막료가 되었으나, 영왕의 모반에 연루되어 지금의 貴州省 서북부의 夜郎으로 유배 가는 도중에 백제성에 도달했을 때 사면을 받고서 백제성을 떠나 삼협

을 지나 강릉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한 시이다.

이백은 당의 현실 상황, 역사적 천도 사례, 금릉이 六朝의 고도인 점, 군사적·지리적 요충지, 물산이 풍부한 점 등을 들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감성적, 정서적인 호소를 통해서도 금릉으로의 천도를 강조하였다.

3. 결론

<爲宋中丞請都金陵表>는 이백이 宋若思를 대신하여 肅宗에게 금릉으로의 천도를 주청하는 글이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정치 이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는 먼저 당의 현실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역사적 천도 사례를 들었다. 이로써 천도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금릉의 각종 지리적 이점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천도의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호소하였다. 이로써 문장에 표현된 감정은 진지하며 간절하고 언어는 매우 정련되었다. 또한 각종 典故를 많이 사용하고 對偶句式을 많이 사용하여 형식의 균제를 추구하였다.

본 문장은 글쓰기 문화유산인 表의 글쓰기 형식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백의 金陵에 대한 천도 관점 및 정치 이상을 이해하고 그의 금릉에 대한 일련의 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 자료이다.

< 參考文獻 >

- 王 琦,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郁賢皓, 《李白叢考》,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2.
 詹 鍔,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牛寶彤, 《李白文選》, 北京: 學苑出版社, 1989.

- 安 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四川: 巴蜀書社, 1990.
- 李 白, 《李太白文集》(宋蜀刻本唐人集叢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詹 鏞, 《李白全集校注匯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朱金城, <論李白的散文>, 《李白學刊》 제1집, 1987.
- 林心治, <隋唐五代的巴蜀散文(三)>, 《渝州大學學報》 第18卷 第2期, 2001.
- 申夏閏, <李白散文譯註(I)-書類(上安州裒長史書)>, 《中國語文論譯叢刊》, 중국어문
논역학회, 제16집, 2010.

< Abstract >

LiBai(李白) followed LiLin(李璘) for stretch his political idealism in the Jinling (金陵) as base. But is LiLin regarded as an enemy and was killed by dispute of the imperial family and LiBai also arrested in the prison of Xunyang(潯陽).

LiBai has been released with the help of SongRuosi(宋若思) and became his Chief of Staff. In the process, LiBai & SongRuosi send and receive poem each other, LiBai instead of him, wrote <Substitute for Song Zhongcheng petition the king about moving the capital to Jinling, write for him by the Biao(表)>. This sentence is LiBai's letter that asked moving the capital to LiHeng(李亨) instead of Song Ruosi, but, in fact, more represent LiBai's political will.

LiBai thought that the Jinling could be replace for Chang'an(長安) as the new capital and also considered here as a place to expand more his political will. In this context, Jinling has abundance of several conditions, as the capital, such as the advantages of transportation, and plenty of talented people, more than anything, "It is called a natural fortress and seems like dragon wind around and tiger sit crouched and have naturalness of opening and closing", for this reason he emphasized the advantages of terrain.

He also stressed Jinling as the capital of The Six Dynasties(六朝) still keep the spirit of the Lord "Palace of The Six Dynasties and five blessings in it.

The remnants of the grand ambition and Supremacy still remains grandly.” Such a description of the Jinling say about his strong desire of moving the capital. Although this writing was written instead of SongRuosi, feelings are sincere and earnest, and language was refined.

Using a lot of an authentic precedent and dual sentence pattern, pursued homogeneous of format. It expresses will of moving the capital to Jinling with persuasively style. This prose is an important resource in understanding the political ideals of LiBai’s political ideal about Jinling and in interpreting a poem concerning Jinling.

Key words: Translation and Annotation, LiBai, Jinling, SongRuosi, moving the capital, Biao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7. 31.	2016. 8. 28.	2016. 9. 9.	2016. 9. 20.	2016. 9. 30.